

'월대체납입제도(아래 월대체)'로 더 잘 알려진 '자동대체납입제도'에 대한 보험 계약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,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.

↑
작금으로 해당 월 보험료를 대체함.

월대체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을 할 수 없을 때, 해약환급을 대비한 적립금에서 월보험료를 자동대체 납입하는 제도다. 통장잔고 부족에 따른 보험계약 실효를 사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, 월대체의 순기능적인 측면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주장이다.

통상적으로 월대체는 보험사가 정한 일정기간이 지난 후, 보험료가 이체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 해약환급금에서 월보험료를 납입하게 된다. 또 2년이 지나야만 해약환급금이 어느 정도 적립되기 때문에, 보험사들도 월대체를 25개월째부터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다.

문제는, 보험설계사들이 월대체의 순기능만을 너무 과대포장한 채, 월대체 보험료를 어디에서 가져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선 정확히 설명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.